

치료 중 다른 곳이 아프신가요?

내 돈 내지 말고 산재보험에 ‘추가’ 하세요!

산재 근로자를 위한 추가상병 신청 완전 정복 가이드

산재 요양 중,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최초 산재 신청 때는 몰랐는데, 치료를 받다 보니 다른 곳에도 통증이 생겼어요.



다친 허리 때문에 이젠 다리까지 저려요.
합병증이 생긴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은 그냥 개인 돈으로 치료받으라고 하는데,
이것도 산재 아닌가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추가상병 신청’**입니다.

'추가상병'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현재 산재 승인 후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기존 상병과 관련하여 새롭게 발견되거나 발생한 부상/질병을 산재보험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누락 상병 (Omitted Injury)

설명: 재해 당시 이미 발생했지만, 처음엔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된 부상.

예시: 넘어질 때 손목만 다친 줄 알았는데, 나중에 MRI를 찍어보니 어깨 회전근개 파열도 함께 발견된 경우.



파생 상병 (Consequential Illness)

설명: 기존에 승인된 부상/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롭게 발생한 질병이나 합병증.

예시: 다리 수술 후 발생한 염증/신경 손상, 또는 다친 다리 때문에 걷는 자세가 틀어져 반대쪽 무릎에 무리가 간 경우.

이 외에도 요양 중 발생한 의료사고나, 병원 통원 중 발생한 사고 등도 추가상병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왜 반드시 신청해야 할까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하지 않으면?

새로운 부상/질병에 대한 치료비 **100% 본인 부담**

‘이것도 산재랑 관련된 거니 신청해 주세요’라고 환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병원은 자동으로 '**개인 비용(비급여)**'으로 처리합니다.

승인 받으면?



치료비 전액 지원

추가된 상병에 대한 모든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합니다.



과거 치료비 환급

승인 전까지 내 돈으로 냈던 관련 치료비도 '요양비 청구'를 통해 모두 돌려받습니다.



요양 기간 연장

치료 기간이 늘어나면서 **휴업급여** 수급 기간도 함께 연장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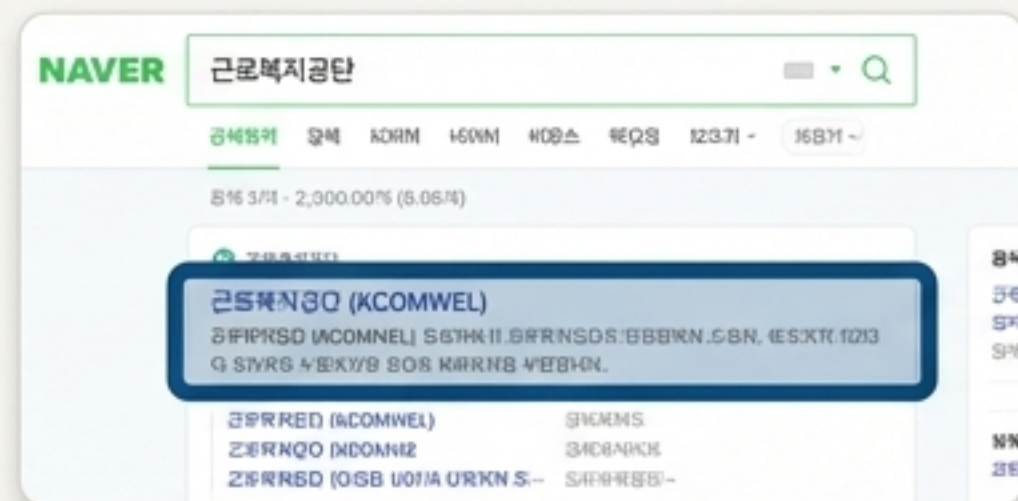


장해급여 가능성

요양 종결 후 추가된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신청서와 소견서, 어디서 다운받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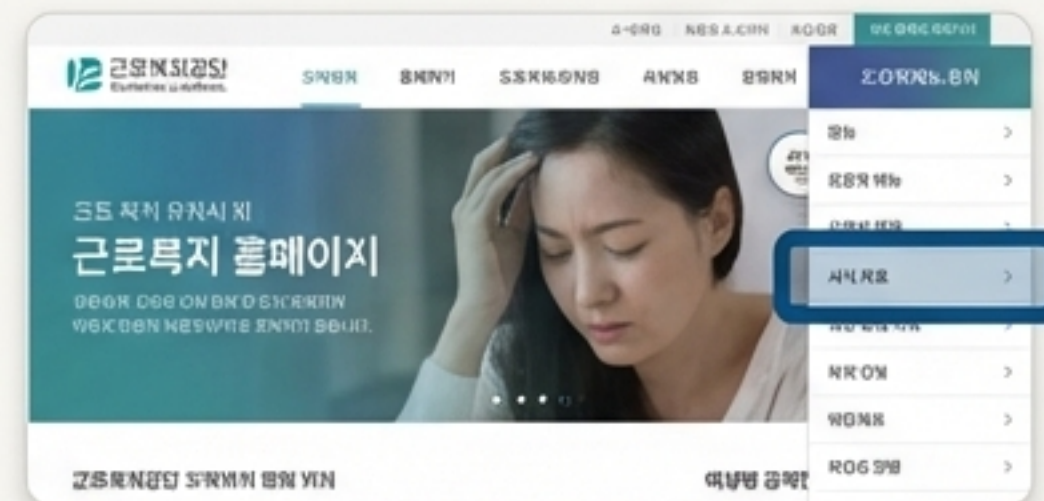
1. 네이버에서 '근로복지공단' 검색



2. '대표 홈페이지'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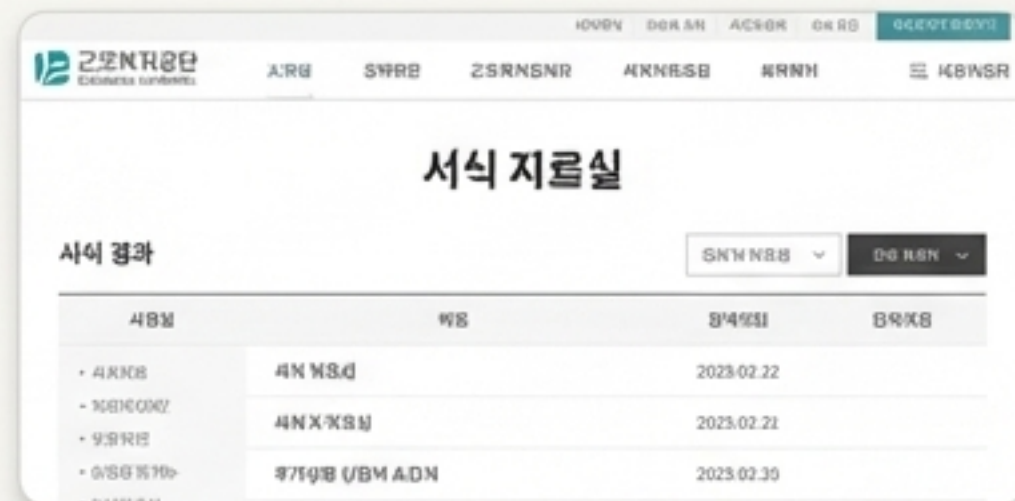
3. 오른쪽 메뉴에서 '서식 자료' 클릭



4. 검색창에 '추가' 입력 후 검색



5. '추가상병 신청서 소견서' 클릭하여



5. 클릭하여 다운로드



****Pro-Tip****: 서식은 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추가상병 신청서 (환자 작성) (2) 추가상병 소견서 (의사 작성).

2단계: 신청서 작성하기 (환자 담당)

(제 1)

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상병 신청서

※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시 지체 없음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②	사실발자	.	재해등록일자	
④	주소	(8단 부8책B 제6순8단 NNN 9A)		

사고일월	☐ 일무			
이웃 189	☐ 일9M ☐ 세3 - 일년 ☐ 세2			
	A[고 다지		A[스 가임]	

⑤ 추가상병 신청 사유

- ☐ 3/AGN 제레스 가위 스웨드 상병
- ☐ S/GQWY에의 세오는 무상가나 합병이 됨
- ☒ 입구GN 제레스 제리 발판과 무가나 상병과 추가로 입경... (누적 상병)
- ☒ 입구다제 제레스 상병과 합쳐서 상병이 된데이 제리 세레스 상병이 생겼... (미생 상병)
- ☐ 9단 총위 세S: 위8+K3, WJ13 N3, 8단 중 KGO 등 해당 시점에 세요.
세로 4MS는 세로일시금 합병 공위를 6MSNN KIN 구제처에서 기제NM 드니하.

☐ 요일 등에 MSM기 발생이나 합병
- 제리 상병과 세2R 단6와 제리 12[외국] 제리 3456으로 139 일터.

관련 권로 의회기관	의료 약&기간	의료 약&기간	산료의료기간

※ 제 발판에서 제출을 13단하는 경우, 해당 의료 '내행세를 위입(S의)' 안에 서명하면 됩니다. 특히 내외인, 노루 시 등)에 57단한 때만 드S 하세요.

2022년 월

2022년 월 일

⑦

신청인 _____
18921년

신청인 서명 _____
18921년 189

* 연방제비NSMB 추가상병 OSB

①~④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해일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⑤ 추가상병 신청 사유 (가장 중요!):

- ☑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 (누락 상병)
- ☑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 (파생 상병)
- ☑ 요양 중의 사고: 의료사고, 병원 내 사고, 통원 중 사고 등 해당 상황에 체크. 사고 시에는 사고일시와 발생 경위를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⑥ 관련 진료 의료기관 : 추가 상병과 관련해 처음 진료받은 병원이 있다면 기재합니다.

신청인 서명: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대리인(노무사 등)이 있다면 해당 란도 작성합니다.



병원에서 제출을 대행해주는 경우, 하단의 '대행 제출 위임(동의)'란에 서명하면 됩니다.

3단계: 소견서 확인하기 (의사 담당)

의사 선생님이 작성하는 부분이지만, 제출 전 반드시 아래 핵심 항목들이 잘 기재되었는지 환자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부형 2)

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상병 소견서

구분		항목	
제8차 상병		판정 사유	
제8차 소견	1. 추가09 08월 00일 의 SRW의 기하학적 수열 2. 추가09 08월 00일 의 SRW의 기하학적 수열		

2. 추가09 상병

제9 08월	누적/확정	의/구

3. 상병 08월 00일 의 SRW의 기하학적 수열

4. 상병 08월 00일 의 SRW의 기하학적 수열

5. 상병 08월 00일 의 SRW의 기하학적 수열

6. 상병 08월 00일 의 SRW의 기하학적 수열

7. 상병 08월 00일 의 SRW의 기하학적 수열

2024. 08. 00.

본 소견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상병 소견서로 사용됩니다.

⑤ 추가신청 상병명:

세부 상병명: '확정된 진단명'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누락/파생: 누락 상병인지, 파생 상병인지 명확히 구분.

좌/우: 왼쪽 다리, 오른쪽 어깨 등 좌/우 구분을 명확히 표시.

⑩~⑪ 발병 원인: 일반적인 원인과 함께, '환자의 추가상병 발병의 구체적인 원인'이 최초 재해와 연결하여 기재되었는지 확인.

⑫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결정적 항목!):

'환자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 상병)와 추가상병 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주치의의 명확한 소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애매하면 불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소견서를 받으면, 특히 12번 항목이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꼭 확인하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의사에게 보완을 요청하세요.

승인과 불승인을 가르는 단 하나의 키워드: ‘인과관계’



‘인과관계’란, 지금 신청하는 추가 상병이 **‘최초의 업무상 재해 또는 기존에 승인된 상병 때문에’** 발생했다는 의학적 연결고리를 의미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그냥 여기도 아파요’라는 주장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최초 사고의 충격이 원인이었다’ 또는 ‘기존 부상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 자료(진료기록, 영상자료 등)로 증명해야 합니다.

최초 사고와 추가 상병을 잇는 ‘튼튼한 다리’를 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다리가 약하면 신청은 무너집니다.

'인과관계' 증명, 실전 예시로 이해하기



나쁜 예 (불승인 확률 높음)

상황

허리 디스크(추간판 탈출증)로 산재 요양 중, 평소에 원래 안 좋았던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추가로 신청.

공단의 판단

무릎 통증은 원래 있던 지병(기왕증)이며, 허리 재해와 직접적인 의학적 관련성이 부족하다.



좋은 예 (승인 확률 높음)

상황 1 (누락 상병)

‘넘어질 때 손목만 다친 줄 알았는데, 계속되는 어깨 통증으로 MRI 검사 결과 ‘회전근개 파열’이 추가로 확인됨.’

↳ **작성 전략**: 의사 소견서에 ‘최초 재해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명시.

상황 2 (파생 상병)

‘오른쪽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고 걷다 보니, 몸의 불균형으로 인해 멀쩡했던 왼쪽 무릎에 무리가 가서 ‘연골연화증’이 발생함.’

↳ **작성 전략**: 의사 소견서에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보행 불균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2차성 질환’임을 명시.

승인율을 높이는 전문가 전략 5가지 (1/3)



Tip 1: 처음부터 모든 증상을 의사에게 알려라.



참는 것이나 말하지 않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이유

진료기록부에 처음부터 통증을 호소한 기록이 있는 것과, 몇 달이 지난 후 갑자기 새로운 통증을 주장하는 것은 공단의 ‘인과관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중에 ‘사실은 아팠는데 참았어요’라고 말해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실천 방법

- **통증 일지 작성:** 언제,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아픈지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 **메모 보고 말하기:** 의사 면담 시 작성한 메모를 보면서 빠짐없이 증상을 전달하고, 그 내용이 진료기록부에 잘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승인율을 높이는 전문가 전략 5가지 (2/3)



Tip 2: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발견 즉시 신속하게 신청.

이유

요양이 거의 끝날 무렵이나 종결된 후에 신청하면, 공단은 '왜 이제 와서?'라며 신청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최초 산재 승인 후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불편한 곳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입니다.



Tip 3: '확진' 받은 후 신청하라: 정확한 검사는 필수.

이유

의사의 추측이나 환자의 통증 호소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공단 자문의 소견과 다르거나 진단 근거가 미약하면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MRI, CT 등 정밀 검사를 통해 '확정된 진단명'을 받은 후 신청하세요. 만약 진단이 애매하다면, 대학병원과 같은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추가 정밀 진단을 받아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인율을 높이는 전문가 전략 5가지 (3/3)



Tip 4: 성실하게 치료받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유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시 나타나 추가 상병을 신청하면, 치료 과정의 일관성이 깨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병원을 방문하고, 성실하게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요양 기간 연장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Tip 5: 애매한 경우라면 산재 전문가와 상담하라.

이유

‘인과관계’ 입증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불승인 처분을 받으면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권장 사항

신청 전, 산재 전문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여 가능성을 진단받고,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세요. 필요하다면 공단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과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원래 있던 질병(기왕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무상 재해로 인해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난이도 높음)

Q 승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치료비는 어떻게 하나요?

A 일단 본인 부담 또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추후 추가상병이 승인되면, 그동안 지불했던 비용을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고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인과관계 증명을 위해 추가 상병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추가상병 신청을 위한 최종 액션 플랜

- ✓ [✓] 1단계: 의사에게 내 증상 정확히 말하기
새로운 통증이나 불편함을 빠짐없이 설명하고 '추가상병 신청' 의사를 명확히 밝히세요.
- ✓ [✓] 2단계: 정밀 검사로 '확정 진단' 받기
말로만 아프다고 하지 말고, MRI 등 객관적인 검사로 정확한 병명을 확보하세요.
- ✓ [✓] 3단계: 주치의에게 '추가상병 소견서' 작성 요청하기
특히 '인과관계' 부분이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 [✓] 4단계: '추가상병 신청서' 작성 후 함께 제출하기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토탈서비스)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 5단계: 승인될 때까지 성실히 치료받기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승인 후에는 못 받은 치료비를 청구하세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